

후설-현상학에서의 심신론

조 광 제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3. 정신세계의 구성 |
| 2. 후설의 태도 변경론 | 4. 신체, 심리 그리고 정신의 상호관계 |
| 2. 1. 자연주의적 태도의 성립 | 4. 1. 세 실재층위들간의 토대부여 |
| 2. 2. 인격주의적 태도의 성립 | 관계와 지배의 관계 교환 |
| 3. 심신문제에 대한 후설 특유의 쟁위론적 입장 | 4. 2. 자연에 대한 정신의 존재론적 우월 |
| 3. 1. 인간신체의 쟁위들 | 5. 맷은 말 |
| 3. 2. 심리구성 | |

1. 머리말

1) 현대를 일컬어 흔히 과학시대라 한다. 이처럼 한 시대를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시대적 구조 혹은 패러다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때, 이 구조 혹은 패러다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주도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인간성을 규정한다. 한편, 이러한 구조 혹은 패러다임이 새롭게 형성될 때에는 그것에 걸맞는 제반 개별과학적 성과들이 뒤따르고, 이에 발맞추어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 즉 그것을 정초하는 존재론이 성립된다.

과학시대를 정초하는 존재론적인 입장은 근대의 실증주의를 이어받은 자연주의 혹은 자연과학주의이다. 자연주의에 의하면, 존재의 방식은 오로지 '객관적으로' 즉 자연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존재자의 관계들을 규칙화하는 법칙들의 방식은 오로지 자연연관의 인과적인 법칙성 뿐이다.¹⁾

이러한 자연주의는 오늘날의 생리심리학이나 사이버네틱스 이론 혹은 컴퓨터 과학의 발달로 계속해서 그 정당화의 자연과학적 지반을 확충하고 있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대적인 자연주의 혹은 자연과학주의는 인간존재를 자연과학적으로 혹은 인과적인 설명으로 남김없이 파악할 수 있다는 가설을 현실적인 자연과학적 성과로 입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증의 방향은 인간에 대한 완전한 기계론적 설명으로 향해 있고, 그 향함은 이미 기계적 인간관을 부식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에 대한 전적인 통제의 길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주의의 주장이 보편성을 획득하기에는 인간특유의 존재방식들에 의해 성립되는 여러 분야의 성과들 가령, 예술, 문화, 종교, 정치, 경제 등의 제반 분야에서 이루어진 사회역사적인 성과들이 너무나 엄청나다. 말하자면, 물질적인 사물 혹은 심리물리적인 심리와는 다른 인간 정신의 특유한 성격을 계속 정당화하는 성과들 즉 자연주의적인 존재론으로는 해명될

*본 논문은 대우재단 post-graduate 장학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1) L. Landgrebe, *Der Weg der Phänomenologie*, Gütersloher Verlagshaus, Gard Mohn, 1971, S. 143.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과들이 엄연히 존립한다. 바로 이러한 성과들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정신적 영역의 성과들은 정신과학들에 의해 설명될 것이나 그 자연적 의미 이상의 의미에 대한 정초는 철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철학적 작업은 그러한 정신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들의 의미와 정신과학들을 동시에 정초하는 존재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해명은 정신을 물리물질적 혹은 물리심리적 존재자들로부터 확실히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분되는 정신적 세계가 오히려 물질적 세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그 과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요청에 걸맞는 존재론이 바로 후설의 영역적 존재론이며, 특히 인간존재론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심신론이다.

2) 자연주의의 절대화로 인해 인간존재의 전체 차원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딥타이와 베르그송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생철학'의 관심사였다. 한편, 니이체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자연화하는 것은 불행한 운명임을 보여주었다.²⁾ 후설이 정신적 세계의 고유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이들과 같은 관심의 계열에서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설은 *Ideen. II.*에서 실질적 *materiale* 혹은 영역적 *regionale* 존재론³⁾을 전개한다. 이 후설의 영역적 존재론의 핵심은 정신이 자연과학적인 물리물질적 사물과 물리심리적인 심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현상한다는 것. 그리고 원본적인 세계의 소여성에서 볼 때 자연적 세계보다 정신적 세계가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다.

3) 후설이 이같이 정신 위주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은 그의 자연주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의 대립을 통해서이다. 정신세계를 고유하게 드러내고 이를 탐구할 수 있는 태도인 인격주의적 태도에 자연주의적 태도가 종속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리물질적 자연의 세계는 정신적 세계에 대해 상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설이 자연주의적 태도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연주의적 태도를 절대화하는 자연주의 혹은 자연과학주의를 경계할 뿐이다. 따라서, 후설의 심신론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그가 애써 전개하고 있는 자연주의적 태도에서의 심신관계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이 자연주의적 태도가 인격주의적 태도에 종속한다는 후설자신의 말에 유의하여 두 태도에서의 소여를 후자의 태도에 입각하여 통일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후설이 신체가 심리의 토대가 되고 심리가 정신의 토대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토대부여 관계의 파악이 자연주의적 태도라는 잘못된 태도에서 파악할 때에만 가능한 분석이 아니라, 이러한 파악으로 구체적인 인간존재의 시공간적 혹은 객관-실재적 측면이 오히려 잘 드러난다고 본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물론 구체적인 인간존재에서 시공간적 혹은 객관-실재적 측면을 무시하고서는 올바른 인간존재의 파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4) 이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구체적인 인간존재의 심신관계에 대해 후설이 취하고 있는 두 방향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성립되는 신체\심리\정신의 토대부여(Fundieren)의 방향과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성립되는 정신\심리\신체의 지배관계의 방향이 상호 중첩되어 만들어내는 인간존재의 각종 충위를 분별해 내고 이들 충위들이 어떻게 정신적 세계를

2) Werner Marx, Die Phänomenologie Edmund Husserls(München : Wilhelm Fink Verlag, 1987), 이 길우 역, 현상학, 서광사, 1989, p.120.

3) *Ideen. II.*, SS.2-4.

중심으로 통일되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그의 현상학적인 심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2. 후설의 태도변경론 : 자연주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

후설의 심신론은 실질적(materitale) 혹은 영역적(regionale) 존재론에서 탐구된다. 후설은 영역적 존재론에서 실질적인 영역인 신체, 심리, 정신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순수의식 혹은 선형적 의식 혹은 절대의식과는 달리 실재성(Realität)을 갖는 대상들이다. 그런데 이 실질적 영역의 구성은 대상을 파악하는 태도와 상관적이다.

이에 후설의 심신론을 탐구하는 데에는 그의 독특한 태도변경론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2. 1. 자연주의적 태도의 성립.

자연주의적 태도는 자연과학적 태도(naturwissenschaftliche Einstellung) 혹은 물리학적 태도(physikalische Einstellung)로 좁혀 불리어지기도 한다. 이 태도는 이론적 태도로서 이론적 주관을 바탕으로 한다. 이 이론적 주관은 자신의 이론적 작용이 수행되기 전에, 이미 지향적 체험에 의해 구성된 대상을 ‘객관화하고 objektivierendes’ 객관화된 의미의 대상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립하고 나아가서는 설명하는 종합에 의해 술어—판단적으로 규정하는 주관이다.³⁾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이론적 태도에서 성립되는 상관자가 바로 자연이다. 자연은 단순한 사실의 영역인 바⁴⁾ 그 안에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예술적 성과들도 포함하지 않는다.⁴⁾

이 자연적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은 실재적 인과성 혹은 자연적 인과성이다.⁵⁾ 이 인과성은 물질세계 뿐만 아니라 심리물리적인 심리세계도 지배한다. 이는 물질세계만 자연인 것이 아니라 심리도 이차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이기 때문이다.⁶⁾

그래서 자연주의적 태도에서는 “객관적인” 물리적 전 자연이 ‘거기에’ 있고, 인간과 동물들은 이 전 자연에 속한 바 인간학적인 혹은 일반적으로는 동물학적인 심리물리적 대상으로만 파악될 뿐이다.

그런데 이 자연주의적 태도는 일상적인 생활 혹은 자연스러운 생활에서는 활동되지 않는 태도이다. 일상적인 생활 혹은 자연스러운 생활에서 관철되는 태도는 오히려 인격적 태도이다. 자연주의적 태도는 일상생활의 객체들 즉 가치적인 대상이나 도구적이고 실천적인 대상에 대해 일종의 에포케를 수행해서 단순한 사실의 영역을 획득하는 태도이다.⁷⁾

문제는 이렇게 자연주의적 태도가 자연스럽지 못한 인위적인 태도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본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태도라고 할 때, 이러한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수행되는 자연이나 혹은 자연으로서의 인간존재에 대한 탐구는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후설은 이러한 자연주의가

4) Ideen, II., S.24.

5) L. Landgrebe, a.a.O., s. 148.; Werner Marx, 이 길우 역, a.a.O., S.108. 후설은 자연적 세계의 지배 원칙을 인과성으로 그리고 정신적 세계의 지배원칙을 동기부여로 본다. 그러나 후설의 용어법에는 ‘동기부여적 인과성 motivationskausalität’이 있는데 이는 역시 동기부여를 자연인과성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6) Ideen, II., S.27. 후설은 자연을 두 가지로 나눈다, 좁고 최하이고 일차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은 물질적 자연, 이차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자연은 일차적 의미의 자연과 생화된, 살아있는 동물적 자연을 합한 자연이다. 이때 심리는 동물적 자연에 속한다.

7) Ideen, II., SS. 27, 183.

절대화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반대하지만 자연주의적 태도 일반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다.

우선 후설은 자연주의적 태도가 자연스러운 태도인 인격주의적 태도에 종속한다고 한다.⁸⁾ 이는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탐구되는 자연이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탐구되는 정신적 세계에 종속되는 것으로 될 때, 그 적극적인 의미가 유지됨을 함축한다 하겠다. 한편, 후설은 자연주의적 태도와 자연스러운 태도를 동일한 것인양 말하고 있다.⁹⁾ 그런가하면, 후설은 *Ideen. II.*의 결론 부분에서 자연주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 그리고 그 상관자인 자연과 정신을 상호연관 안에서 고찰하고자 한다.¹⁰⁾ 이는 후설이 자연주의적 태도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학적으로 그 의미를 살려내고자 함임을 보여준다.

2. 2. 인격주의적 태도의 성립

후설은 *Krisis*에서 아예 생활세계적 태도로서의 자연적 태도에 기반하여 자연과학주의적 태도와 그 상관자인 수학화된 즉자적 자연의 구성을 해명한다. 그러나 *Ideen. II.*에서는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출발해서 자연주의적 태도로서는 해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인격주의적 태도로 넘어간다. 그래서 후설은 자연주의적 파악에서, 실재성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여분(Plus), 즉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기술해 온 유형의 구성된 파악계기들의 단순한 복합이 아닌 어떤 여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인격주의적 태도로 이행함의 근거로 삼는다.¹¹⁾ 이 여분은, 내가 이론적이고 정서적이고 실천적인 연관에서 각종 태도를 가질 때 내가 사실들 *Sachen*에 의해 제약됨을 느끼지만, 이 때 내가 인과적인 방식이 하나인 심리물리적인 방식으로 제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일례를 나타난다.¹²⁾ 인격주의적 태도에서의 소여방식은 자연주의적인 것과는 달리, 우선 주관이 인격체로 나타나고 주위의 물질세계는 인격체인 주관과의 연관에서 환경세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격주의적 태도는 우리가 서로 함께 생활하고, 서로에게 말하고,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사랑과 협오 혹은 성찰과 행동 혹은 찬성과 반대로 서로 관계하고, 주위의 사물들을 우리의 환경으로 간주하는 자연적인 일상적 태도이지 인위적인 태도가 아니다.¹³⁾

인격적 자아인 정신은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그 상관자로 구성되는 정신적 세계의 근본개념이다.¹⁴⁾ 정신적 자아는 자신의 환경세계의 구성물들과 실재적 관계가 아니라 지향적 관계를 갖는다. 이 관계에서 지배원칙이 바로 동기부여적 인과성, 혹은 단적으로 말해 동기부여이다.¹⁵⁾

8) *Ideen. II.*, SS. 183–4. 여기서 후설은 자연주의적 태도가 인격주의적 태도에 종속됨을 지적하면서, 자연주의적 태도가 추상에 의해 혹은 오히려 인격적 자아의 자기망각에 의해 모종의 독립성을 획득하며 동시에 자신의 세계 즉 자연을 부당하게 절대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9) *Ideen. II.*, S. 179 : “Das Erzieherische—, die der natürlichen oder, wie wir jetzt deutlicher sagen, der naturalen Einstellung sind. —”

10) *Ideen. II.*, S. 281. 여기에서 설정된 제목은 “62절. 인격주의적 태도와 자연주의적 태도의 협동”이다.

11) *Ideen. II.*, S. 140.

12) *Ideen. II.*, S. 183.

13) L. Landgrebe, a.a.O., S. 148. 여기에서 란트그레베는 물질적 자연, 동물적 자연, 정신적 세계 등 세 영역(Region)에 대한 근본개념으로 각각 사물 혹은 ‘단순한 사실’이라는 개념, 생화된 신체물체적인 존재라는 개념 즉 심리라는 개념, 인격적 자아와 그 인격적 활동인 정신이라는 개념을 대응시키고 있다. 이는 물론 후설의 분석을 따른 것이다.

14) *Ideen. II.*, SS. 215–6

3. 심신문제에 대한 후설 특유의 층위론¹⁵⁾적 입장.

; 후설의 심신론 즉 신체와 심리 및 정신의 관계는 층위론(Schichtentheorie)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낮은 층위는 더 높은 층위의 토대가 된다는 것, 가령 신체는 심리의 토대층위를 이루고 심리는 정신의 토대층위를 이룬다는 것¹⁶⁾, 다른 하나는 높은 층위는 낮은 층위에서 자신의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 가령 심리는 신체를 심리화하고(혹은 생화하고 beseelt) 정신은 심리와 신체를 정신화(begeist) 한다는 것¹⁷⁾이다.

그러나 후설의 심신론의 특징을 이루는 이 층위론은 이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본 신체, 심리, 정신의 의미가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본 신체, 심리, 정신의 의미와 상호교환하면서 동시에 종속적으로 재의미화되고, 신체의 의미가 양태도에 따라 다양한 양태와 기능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있다.

후설이 행한 신체, 심리, 정신에 대한 고찰을 그의 태도변경론과 연관시켜 보면, 신체에 대해서는 주로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고찰하고, 심리에 대해서는 신체제약적인 심리층위는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그리고 정신제약적인 심리층위는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고찰하고, 정신에 대해서는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신체, 심리, 정신 모두의 통일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자연주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의 협동에 의해 고찰한다고 개략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후설의 고찰에 탐구태도의 구분을 이처럼 항상 준별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1. 인간신체의 층위들

후설은 신체층위를 물리물질적 신체층위, 전신감각적 신체층위, 의지적인 신체층위 등 세 층위로 구분한다.

1) 물리물질적 신체층위

; 신체는 근원적으로 이중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신체는 한편으로 물리적 사물 즉 물질로서 연장을 지니고, 그 연장 안에서 실재적인 속성들 즉 등그스럼함, 매끈함, 단단함, 따스함 그리고 그 외의 물질적인 속성들을 지닌다. 신체는 다른 한편으로 내가 그 “안에서 in”, 그 “위에서 auf” 그리고 그것 “에서 an” 다른 것의 따스함이나 차거움 혹은 촉감각들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⁸⁾

15) Hirotaka Tatematsu, “Husserls Sicht des Leib—Seele Problems”(Soul and Body in Husserlian Phenomenology, ed. by Anna-Teresa Tymieniecka,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83. 에서). 이 논문에서 필자는 후설의 심신문제에 대한 시각을 층위론(Schichtentheorie)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 논문이 층위론이란 용어를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후설의 심신론을 나름대로 해명하고자 한 것은 돋보인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필자가 후설의 심신론을 층위론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도 사실 이 논문에서 획득한 구도임을 밝힌다. 그러나, Tatematsu의 이 논문은 후설의 심신론을 다루는 데 필수적인 태도론을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층위론의 근거를 놓치고 있다.

16) Ideen. II. S.281. “정신적인 자아는 심리에 의존하고 심리는 신체에 의존한다”(……; so hängt das geistige Ich von der Seele und die Seele von Leibe ab.)

17) Ideen. II. S.175. “심리는 신체를 심리화(생화)한다.”(Die Seele beseelt den Leib.) Ideen. II..S.236. “정신적인 의미는 감각적인 현출들을 생화하면서”(Der geistige Sinn ist, die Sinnlichen Erscheinungen beseelend, …) Ideen. II., S.236.

“h) 포괄적인 통일태인 신체와 정신：“정신화된” 객체들(……; “begeiste” Objekte) 된다.

18) Ideen. II., S.145.

여기서 물리물질적 신체충위는 물론 전자로 구성된 충위이다. 그리고 후자의 신체충위는 전신감각적인 신체충위이다.

물리물질적 신체충위의 구성은, 가령 내가 오른손으로 나의 왼손을 만지면 그 왼손에서 일련의 촉감각들이 “자리잡고 있음 lokalisiert sein”을 발견하는데 이 때, 왼손에서 이러한 촉감각들을 사상하고 나면, 물리적 사물인 “왼손”이 구성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물리적 사물인 왼손은 나의 신체가 아닌 다른 물리적 사물들과 동일한 존재방식을 갖는다.¹⁹⁾

그런데, 이같이 신체충위를 물리적인 것과 전신감각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추상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²⁰⁾

물리물질적 신체충위는 다른 사물일반과 같이 기계적인 운동을 한다.²¹⁾ 이는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라든가 차 안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 몸이 앞으로 기우는 경우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운동형태이다. 이렇게 볼 때, 물리물질적 신체충위는 철저히 자연인과성에 얹매여 있는 충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물리물질적 신체충위만을 인간으로 보는 것은 자연주의적 고찰에서 성립된다. 이 때의 인간은 자연적 실재로서의 인간인 바 그 위에 새로운 존재충위인 신체—심리적인 충위가 전립되는 물질적 육체로서의 인간이다 이 “자연으로서의 인간”은 “정신으로서의 인간”과 궁극적으로 구분되면서 구성된다.²²⁾

2) 전신감각적 신체충위

; 이 신체충위는 앞서 물리물질적 신체충위를 고찰하는 데서 이미 지적된 바 있는 신체의 이 중적인 구성방식 중 후자의 경우, 즉 내가 신체 “안에서 in”, 신체 “위에서 auf” 그리고 신체 “에서 an” 다른 것들의 따스함이나 촉감각들을 발견한다고 할 경우에 구성되는 신체충위이다.¹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촉감각들이 신체에 여러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Lokalisation haben”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이 전신감각적인 신체충위는 “자리잡음 Lokalisation”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감각들이 신체에서 자리잡는 바 특수한 신체의 사건을 신체감각 Empfindnis이라 일컫는데 이는 상기 물리물질적인 신체충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물질적 사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신체감각들은 물리적 사물로서의 신체의 속성들은 아니지만 신체라는 사물의 속성들이며, 더욱이 작용을 행사하는 속성들 Wirkungseigenschaften이다. 이 신체감각들은 신체가 만져지고 압박받고 혹은 찔릴 때 나타나는데 신체가 바로 그렇게 되는 시각과 바로 그렇게 되는 장소에서 나타난다.²³⁾

한편, 이 신체감각은 신체로써 다른 사물을 만질 때 그 물리적 사물에 대한 지각에 항상 수반되어 나타나는데, 이같은 두 파악의 연관은 필연적인 것이다.²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체감각이 신체에 자리잡는 경우 성립되는 공간성은 일반 물리적 사물들이

19) Ebd.

20) Ideen. II., SS. 155–6.

21) Ideen. II., S. 160. 이 물리물질적인 신체충위의 기계적인 운동은 자유의지의 기관으로서의 신체충위 즉 정신적 자아의 영향을 받는 신체충위가 지니는 자발적인 운동과 대립으로 고찰된다.

22) Ideen. II., S. 146. 이러한 신체감각에는, 감각적 사물의 구성에서 구성적인 기능을 갖는 감관적 감각들, 희감이나 불쾌감, 가치평가작용이나 그 지향적 상관자인 가치에 대해 소재의 역할을 하는 감각들, 욕구나 의지에 대해 소재적인 토대가 되는 감각들, 긴장감이나 이완감, 신체의 마비나 자유로움에 대한 감각 등이 속한다. (Ideen. II., SS. 152–3).

23) Ideen. II., S. 147.

갖는 연장 *Ausdehnung*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확장 *Ausbreitung*이라는 사실이다. 연장을 바탕으로 하는 물리적 사물의 실재적 속성들은 감각적 도식들과 음영다양에 의해 구성되지만, 확장을 바탕으로 하는 신체감각은 이러한 감각적 도식들과 음영다양과는 무관하다. 촉감각적인 신체감각 *Tastempfindnis*은 물질적인 손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사물이 아닌 손 자체이다.²⁴⁾

그런데, 후설은 이러한 신체감각이 나의 심리 *Seele*에 속하고 모든 연장된 것은 물질적인 사물에 속한다고 함으로써²⁵⁾, 전신감각적인 신체충위가 심리 내지는 심리적 주관에 연관된 혹은 심리 내지는 심리적 주관과 영향을 주고 받는 심리물리적인 신체충위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심리물리적 신체충위는 심리물리적인 인과성에 지배받는 것으로 된다.

심리물리적 인과성은 오히려 “조건부여관계 *Konditionalität*”라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서 실재적인 것 *Realität*과 비실재적인 것 *Irrealität*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 때, 비실재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 *Subjektivität*이다. 사물들이 “경험되면서” 주관에 “직관적으로 주어질 때” 필연적으로 시공간적인 인과관계의 통일체로 주어지는데, 이 인과관계에는 독특한 사물인 “나의 신체”가 필연적으로 속해 있다. 이 나의 신체는, 주관적인 조건부여관계의 체계와 사물적인 인과성의 체계가 결합되는 장소이다.²⁶⁾ 이때, 이 “나의 신체”는 적어도 나의 신체라 부를 수 있는 한에서 물리물질적 신체충위가 아니라 전신감각적 신체충위임을 나타낸다.

심리물리적 인과성 혹은 조건부여관계 혹은 신체론적 인과성 *somatologische Kausalität*은 직접적으로는 주관적인 영역에서의 비실재적인 사건들이 신체실재와 갖는 관계이고 간접적으로는 주관적인 영역에서의 비실재적인 사건들이 신체와 실재인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 실재와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²⁷⁾ 전신감각적인 신체충위는 바로 이러한 심리물리적 인과성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전신감각적인 신체충위는 심리충위를 고찰하는 것에 연관해서 다시 거론될 것이다.

3) 의지적인 신체충위

: 이제까지 고찰한 두 신체충위는 자연주의적 태도와 깊이 연관된 신체충위였으나 이제 살펴보자 하는 신체충위는 상기 지적한 대로 인격주의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신체충위이다.

따라서, 이 신체충위는 정신이 활동적으로 여러 상이한 기능적 운동들을 수행할 때 그러한 운동들과 관계를 맺는 자기동일적인 신체충위이다.²⁸⁾ 이 신체충위는 인격 혹은 정신이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임으로써 성립된다.²⁹⁾ 그리고 정신이 자신의 정신적인 환경세계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의지기관으로서의 신체충위를 통해서이다.

이 자유로운 신체충위에서 성립되는 것이 바로 운동감각 *kinästhetische Empfindung*이다. 이러한 운동감각은 내가 나의 손을 움직일 때,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도 그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아는 경우 성립되는 신체에 대한 감각이다.³⁰⁾

24) *Ideen*. II., S. 149–50.

25) *Ideen*. II., S. 64.

26) *Ideen*. II., S. 65.

27) *Ideen*. II., S. 284.

28) *Ideen*. II., S. 282, 285.

29) *Ideen*. II., S. 285.

30) *Ideen*. II., S. 151.

이 운동감각은 다른 사물들의 지각에 있어서 음영점의 체계와 연관됨으로써 지각적인 사물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른 사물에 대한 파악은 연장적인 파악 혹은 사물적으로 연장된 징표에 대한 파악인데, 이 파악들은 그 현실적이거나 가능적인 경과에 있어서 운동감각들의 체계에 의해 동기지워지면서 또 그것에 연관된다. 이는 “만약…하면…한다 wenn…so”거나 “…하기 때문에, …하다 weil…so”의 형식으로 운동감각의 체계에 의해 징표감각들의 체계가 동기지워진다는 것으로 정돈된다.³¹⁾ 이렇게 동기부여관계 Motivation가 운위된다는 것은 운동감각이 정신이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립되는 의지적인 신체충위에서 성립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관계는 바로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의지적인 신체충위는 방향설정의 영점 Orientierungspunkt Null 즉 “지금—여기”의 담지자이다. 그러므로 이 신체충위의 자유로운 운동에 따라 주위에 있는 사물들과 그 현출들은 오른쪽이나 왼쪽 혹은 가까이나 멀리 혹은 앞이나 뒤 등 각 방향 설정에 있어서 동기지워진다.³²⁾

이 의지적인 신체충위는 정신충위를 고찰하는 것과 연관해서 다시 거론될 것이다.

3. 2. 심리구성

: 심리는 이중적인 충위를 지닌 실재이다. 한 충위는 심리가 신체적으로 제약되고 물리적으로 조건지워지는 것으로서 물리학적인 신체에 의존해 있는 측면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충위의 심리는 물질적 자연 Physis에서 그 실제적인 환경을 갖는 자기 동일적 실재이다. 다른 한 충위는 심리가 정신적으로 제약된 것으로서 정신과의 실재성의 연결 Realitätskonnex 상태로 존재하는 측면에서 성립하는 충위이다.³³⁾

이렇게 볼 때, 심리는 신체와 정신의 중간에 위치한 충위로서 양쪽 모두에 제약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심리가 신체와 정신에 의해 제약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심리가 신체 그리고 정신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심리 자체의 구성에 대한 고찰을 상당부분 함축하게 될 것이다. 신체에서 심리를 구분하는 후설의 고찰은 전신감각적인 신체충위의 구성에서 신체감각이 구성되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루어지고, 심리에서 정신을 구분하는 후설의 고찰은 체험류를 신체연관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후자가 성립하는 것은 심리란 기본적으로 신체연관적이고 신체의존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체와 무관한 체험류의 성립을 보이는 것은 심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실재 즉 정신의 구성가능성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심리”와 유사한 용어들의 의미 구분

“심리적인 것”과 “심리”는 거의 같은 영역을 지시하고 있으면서도, 심리의 의미가 심리적인 것에 대한 완전한 직관을 지시한다고 한 것(Ideen. II., S.91)으로 보아 “심리”는 “심리적인 것”을 더욱 뚜렷하게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후설은 “심리”와 “심리적 주관”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심리적 주관은 심리적 자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심리에 매설되어(a.a.O., S.134) 속해 있고(a.a.O., S.120) 이 심리에 대해 비독립적이면서도 모종의 방식으로 오히려 심리를 포섭한다.(a.a.O., S.134). 이는 심리자체만으로는 주관적 활동을 수행할 수가 없고 심리적 주관이 구성되어야만 주관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지만 심리가 없이는 심리적 주관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심리적 주관

31) Ideen. II., S.57–8. EU., S.89. PS., SS.13f.

32) Ideen. II., S.56–7.

33) Ideen. II., S.284.

34) Ideen. II., S.143–4.

혹은 심리적 자아는 신체를 사상했을 때 발견될 수 없는 것. 그리고 심리적 주관 혹은 심리적 자아는 신체를 사상했을 때 발견되는, 체험류에 연관된 정신적 자아(a.a.o., S.97)에 연결되는 심리층위이다는 것 등을 합축하고 있다.

그 외 “심리적 존재”나 “동물적 주관” 등의 표현은, 심리적 존재가 심리적 자아주관을 포함한다(a.a.O., S.175)거나 심리적 주관은 동물적 주관을 우세하게 지배한다(a.a.O., S.135)는 등의 기술에서 그 의미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여하튼 “심리적 존재”는 심리내적으로 연관되는 전체 영역을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동물적 주관”은 “인간적 주관”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관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설의 이러한 다양한 용어법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심리”라는 말을 택하고 있다(a.a.O., S.135).

2) 신체로부터의 심리의 구성

: 후설은 “자연으로서의 인간”과 “정신으로서의 인간”을 구분하고, 자연으로서의 인간(후설에게서 이 자연으로서의 인간은 경험적 자아인 “자아—인간”으로서 심리적인 체험적인 속성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속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한다(Ideen, II., S.93.)에 대한 구성적인 분석의 출발점을 물질적 자연이 동물적 주관에 연관된다는 데서 잡는다.³⁴⁾ 이 자연으로서의 인간이 죽은 사물이 아닌 것은 바로 심리 때문이다. 한편, 이 심리적 주관은 물질적인 신체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유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지녀야 한다.³⁵⁾

이처럼 심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물질적인 신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곧 심리의 구성에는 물질적 신체의 연관이 필연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 신체에서 심리의構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전신감각적인 신체층위의 존립이다. 왜냐하면, 이 전신감각적 신체층위의 존립은 곧 심리와 물질적 신체의 결합을 증시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어법에서 심리적인 것은 내적인 지각, 내성, 내적인 기억, 내적인 자유로운 상상, 내적인 표상 등에서 파악가능한 시작과 끝이 없는 체험류를 말하는데, 이 체험류는 물질적인 신체들에 대한 연관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³⁶⁾ 이러한 심리적인 것의 일종인 신체감각 Empfindnis을 고찰함으로써 신체로부터 최초로 심리층위를 구성해 낼 수 있다.

전신감각적 신체층위의 구성에 대해서는 3.1.의 2)에서 이미 고찰하였다. 다만 여기서 부기적으로 고찰하려는 것은 물리적 신체와 심리가 결합해서 전신감각적 신체층위와 심리적인 것인 신체감각이 성립되는데, 이러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물의 연장적인 속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원천을 가진다. 그리고 자극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사물과는 다른 차원의 실재적 속성들이 있다는 표지이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속성들을 지닌 신체층위가 바로 전신감각적 신체층위이다. 이 새로운

35) Ideen, II., S.94.

36) Ideen, II., S.92. 이같이 체험류를 물질적인 신체에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주의적 태도이다. 체험류를 자연주의적 태도로써 물질적 신체에 연관된 것으로만 보는 경우에는 오로지 심리만이 성립되고 심리와 구분되는 정신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나, 태도변경에 의해 심리적으로 파악된 것을 물리적인 신체로부터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 때 의식은 그 자체적인 것으로서 자연없이도 생각가능한 것으로 된다. <Ideen, II., SS. 177-8>. 이러한 순수체험류의 존립은 곧 정신적 자아 구성의 단초가 된다. <이러한 순수체험류의 존립은 자연세계와 인격세계의 대립관계를 논의하는 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신체충위는 물질적 신체와 심리를 결합케 하는 매개이다. 여기에서 파악가능한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신체의 자리잡힌 *lokalisierte* 충위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자리잡힌 신체충위를 포함한 신체에 의존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의식소재로서 의식의 받침을 형성하고, 의식이 이것들을 실재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 이 파악은 심리와 심리적 자아로서 경험된다.³⁷⁾ 이렇게 볼 때, 심리와 심리적 자아의 구성에는 신체가 자극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실재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신체와 심리의 결합에도 이 두 요인이 전제되어 있다 하겠다

이로써, 심리와 심리적 자아가 신체를 “가진다”는 것이 성립된다. 심리와 심리적 자아가 신체를 갖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과정이 의식사건들에 대한 수행조건이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과정에 의식사건들이 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³⁸⁾ 이는 바로 심리가 물리적 신체에 연관해서 심리물리적인 인과성에 지배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심리주관, 심리상태 *seelischer Zustand* 그리고 심리적 속성 *seelische Eigenschaft*.

; 심리를 구성하는 요인에는 심리주관, 심리상태 그리고 심리적 속성이 있다. 심리주관은 물질적 사물이 사물적—실재적 속성들의 기체 *Substrat*인 것처럼 심리적 속성의 기체이다. 그리고 심리주관은 의식체험들을 지니는데, 이 체험들은 심리주관의 속성들이 아니라 심리주관의 내용을 이루는 심리상태이다. 심리적 속성들은 심리를 알리는 통일성들이다.³⁹⁾

심리적 속성들은, 사물의 속성들이 사물현출들에서 알려지는 것과 유사하게 현실적이거나 가능적인 심리적 체험들에서 알려진다. 이 심리적 체험들은 심리적인 경험다양 *Msanmingfaltigkeit der seelischen Erfahrung*으로서 서로에게 흘러들어가거나 넘겨지거나 결합되는 방식으로 통일된 의식으로 결합된다. 심리적 속성들은 두 단계의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낮은 단계의 심리적 속성은 일단의 경향들 *Dispositionen*이고, 높은 단계의 심리적 속성은 이 낮은 단계의 경향들에서 구성되는 것들이다. 가령, 지적인 경향으로서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지적인 성격으로서의 속성이 있는 것이다.⁴⁰⁾

심리상태는 심리가 자신의 환경과 갖는 관계에서 규칙적인 방식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심리상태는 심리의 환경들에 미루어서 해석된다.⁴¹⁾ 심리가 환경들에 의존하는 것은 상호주관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심리물리적인 측면과 심리자체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 심리물리적인 측면의 의존성은 감각적인 느낌이나 충동감 그리고 이것들의 재현에 있어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심리가 신체와 아울러 물리적인 자연에 의존하는 데서 성립한다. 심리자체적인 측면의 의존성은 사물과 다른 심리 특유의 것⁴²⁾으로서 동일한 한 심리 내에서 그때 그때의 전체험성소들이 앞선 체험성소들에 의존하는 데서 성립한다. 말하자면, 앞선 심리상태는 현재의 심리상태에 대해 환경의 역할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⁴³⁾

37) *Ideen*. II., S. 157.

38) *Ideen*. II., S. 121.

39) *Ideen*. II., S. 122–3.

40) *Ideen*. II., S. 124.

41) 물질적 사물은 외부에 의해 제약받지만, 자기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는 제약받지 않는다. 그러나 심리상태는 과거의 심리상태에 의해 제약받는 것이다. 말하자면, 물질적 사물은 역사를 가지지 않지만, 심리적 실재는 바로 역사를 갖는다(*Ideen*. II., S. 137>)

42) *Ideen*. II., S. 135–6.

4) 물질적 실재와 대립해서 본 심리적 실재의 특성

: 심리생활은 본질필연적으로 하나의 흐름이다. 그리고 심리는 심리생활의 담지자이다. 심리생활은 공간형식과는 아무런 짹지움도 갖지 않으며, 이러한 심리생활의 담지자인 심리는(신체가 지속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통해 펼쳐지는 통일태이다.⁴³⁾ 심리 및 심리생활은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물질적 실재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a. 심리는 순수 공간적인 도식(감각적 충족이 없는 연장)이나 전형－도식(감각적으로 충족된 연장; 음영점의 다양의 통일성)을 갖지 않는다. 말하자면, 심리는 도식화되지 않는다.⁴⁴⁾

b. 심리는 “즉자 *An sich*”를 결코 갖지 않으며, 물리학의 사물처럼 수학적인 본성을 지니지 않는다. 심리는(신체도 그러한데)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자연이라는 의미의 “자연적 속성들”을 갖지 않는다.⁴⁵⁾

c. 물질적인 사물은 가분적인 반면, 심리는 불가분적 *unzerstückbar*이다. 그러나 심리는 낮은 충위(신체제약적인 충위)와 높은 충위(정신제약적인 충위, 가령 *cogito*나 이론적 사유의 충위)로 구분 *Teilung*될 수는 있다.⁴⁶⁾ 물질적 사물은 충위가 없는 실재이다.⁴⁷⁾

d. 물질적 사물은 과거에 제약받지 않지만, 심리적 실재는 역사를 지니는 것으로서 과거에 제약받고 따라서 본질상 결코 동일한 전체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⁴⁸⁾

5) 심리와 정신의 구분 : 후설－현상학에서의 심신론의 근본 특징

: 이 문제는 심리를 정신과 대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심리로부터 구분해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문제야말로 본 논문의 주제인 “후설－현상학에서의 심신론”을 핵심적으로 규정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이래 사유적 실체로서의 정신은 심리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서 연장적 실체인 신체와 대립적으로 탐구된 것과는 달리, 후설의 심신론은 태도의 변경가능성과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 신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순수체험 혹은 순수의식 혹은 절대의식 혹은 순수 내지는 선형적 주관 혹은 정신적 자아 혹은 인격내지는 인격적 자아 등의 성립가능성을 드러내고, 심리가 그 환경 *Umstand*과 실재적인 관계만을 갖는데 비해 이들은 자신의 독특한 활동에 의해 자신의 것으로 갖는 “환경세계 *Umwelt*”에 대해 지향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뚜렷이 함으로써 비로소 심리와 정신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3. 3. 정신세계의 구성

1)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인격주의적 태도로의 환원 : 심리에서 인격(정신)으로

; 이에 대해서는 앞서 2.2에서 개략적으로 이미 고찰한 바 있다. 다소 중복되는 점이 없지는 않지만 더욱 세밀하게 특히 정신적 세계의 근본개념인 인격의 구성을 중심으로 다시 고찰하고자 한다.

a. 현상학적 환원에 의한 순수의식의 추출과 인격주의적 태도의 성립가능성⁴⁹⁾

; 우리는 각 통일태들의 구성에서 자료적인 것 즉 감각자료들에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에

43) *Ideen*. II., S.117, 133.

44) *Ideen*. II., S.127.

45) *Ideen*. II., S.132.

46) *Ideen*. II., S.133.

47) *Ideen*. II., S.136.

48) *Ideen*. II., S.177－80.

수반되는 신체감각에 대한 파악을 제거할 수가 있다. 즉 우리는 체험류의 통일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체험류가 체험하는 동물적인 사물의 체험상태로서 존립함에 대한 파악을 제거할 수가 있다. 이처럼 의식이, 신체에 존립하는 충위인 심리적 상태에 대한 파악을 끌어버리고 나면, 즉 의식이 현상학적 환원 내에서 그 자체로서 정립된다면, 의식이 객관적인 공간 내에서 지니고 있던 모든 경험적 질서는 소멸한다. 이로써 그야말로 순수하고 절대적인 의식이 성립되는데, 이 순수 내지는 절대적인 의식에 대한 자의적인 태도를 무시함으로써 전혀 수고없이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인격주의적 태도로 혹은 자연과학적 태도에서 정신과학적 태도로 이행할 수가 있다. 한편, 자연주의적 태도에서의 소여성과 인격주의적 태도에서의 소여성 간의 관계를 정당하게 정립하고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상기 절대의식으로의 환원에 의해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후설이 현상학적 환원에 의한 절대의식류를 자연주의적인 태도와 인격주의적인 태도가 성립할 수 있는 원본적인 토대이자 양 태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연주의적 태도를 인위적인 것으로 그리고 인격주의적 태도를 인위적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인격주의적 태도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자연주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를 구분해야 할 필연성 : 구체적 생활에서 본 이중적인 파악

; 구체적인 인간주체인 나는 사물적인 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것에 의존하는 것을 안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신체가 사물적인 연관 안에 처해 있다는 것과 심리물리적 상관자로서의 심리상태가 성립됨을 안다. 가령, 나는 막대기에 부딪치면 접촉과 압박과 가벼운 통증을 느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이러한 심리물리적 의존성과는 상관없는 사태를 파악한다. 가령, 나는 천의 부드러움이나 아름다움이나 아름다운 색상에 의해 웃가지를 선택하고 거리의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는다. 이 경우에도 역시 나는 사실 연관 속에 있긴 하지만 결코 심리물리적으로만 제약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심리물리적 의존성이나 심리자체적인 의존성이 함께 작용하지만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⁴⁹⁾

이를 일반화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으로서의 인간과 인간적인 심리에 연관해서 볼 때, 심리적인 상태에는 인간주관이 자신과 이웃과 주변의 실재적인 현실에 대해 의식하고, 그것들을 자기 앞에 놓고 보고,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사유하고, 그것들에 심정적이거나 의지적으로 관계하는 등의 모든 작용들이 속한다. 이 모든 작용들은 주관과 주관의 “환경세계”간의 관계들에서 성립되는 것들인데, 그 환경세계에는 단순한 사물을 뿐만 아니라 ‘도구적 대상, 예술품, 문학작품, 종교적 매체, 법적인 행위 등이 속해 있고, 더 나아가 개별적인 인격체들과 더 높은 질서의 인격적 통일체들인 공동체들 즉 가정, 계급, 범인, 교회, 국가 등이 속해 있다.⁵⁰⁾ 그런데, 환경세계에 속한 것들 중에 단순한 사물들을 제외한 나중에 열거한 것들은 모두 다 인격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심리물리적인 의존성과는 본질상 관계없는 것들임에 분명하다.

후설은 이같이 심리물리적인 의존성과는 본질상 관계가 없는 것들, 소위 인격적인 연관의 것들 중 어느 하나를 그야말로 생생하게 현전화해서 현상학적인 확대경으로 그 소여방식을 반성하면 자연주의적 태도와는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태도 즉 인격주의적 태도가 성립된다고 한다.⁵¹⁾

49) Ideen. II., S. 140.

50) Ideen. II., S. 180-2.

51) Ideen. II., S. 182.

2) 인격과 환경세계

a. 환경세계의 중심점인 인격

: 자아와 환경세계라는 두 개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⁵²⁾ 이 때, 자아는 상기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성립되는 인격이고, 환경세계는 “즉자적인” 세계가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나에 대한” 세계로서 의미내용을 지닌 지향적인 체험내에서 나에 의해 정립되는 세계이다.⁵³⁾ 인격인 나의 지향적 체험을 형성하는 나의 인격적인 작용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가치화하는 작용, 욕구하는 작용, 실천적인 작용 등이다. 이러한 지향적 작용들에 의해 활이 바이올린을 문지르는 것과 음의 진동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멜로디가 구성되고, 시커먼 돌덩어리인 단순한 석탄을 넘어서서 연료라는 사용대상과 상호주관적인 사용 가치와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 구성되고, 거저 높이 솟아있을 뿐인 산 정상을 넘어서서 정복해야 할 목표로서의 산 정상이 구성된다.⁵⁴⁾ 이렇듯 나의 새로운 지향적 작용들에 의해 더 높은 단계의 대상으로 구성된 것들은 바로 환경 세계적인 대상들이다. 이는 비유컨대 마치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전설의 이야기와 같다 하겠다. 단지 여기에서는 새로운 지향적 작용들이 바로 그 손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인격으로서의 나와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는 환경세계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제 외부 사물이 나를 자극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말하자면, 이전의 사물과 자연실재로서의 인간 간의 인과적인 관계에서부터 이제는 자연의 사물이 아닌 환경세계적인 사물과 인격 간의 지향적인 주·객관계 즉 동기부여적 관계로 바뀐 것이다.⁵⁵⁾

b. “자유로운 자아”인 인격 : 가능성과 자유

: 인격은 경험적인 주관과는 달리, 이성이라는 관점 하에서 판단될 수 있는 작용들의 주관이자 “자기책임”的 주관이며 또한 자유롭기도 하고 종속되어 자유롭지 못하기도 한 주관이다.⁵⁶⁾ 여기서, 후설이 이성, 자유, 책임 등의 문제를 인격이라는 정신적 주관을 특징짓는 문제로 삼아 고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설은 ‘자유’를 규정짓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의식방식으로 한다. 후설은 자유의식을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평과 미래적인 지평에 연관해서 고찰한다. 자유의식은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평에 놓여 있는, 바로 그 행동에 대한 미래적인 지평에 대한 것으로서 성립된다. 그래서 자유의식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실천적인 지향들의 지평에 연관해서 성립한다. 이 때, 자유의식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es wird kommen” od. “es wird geschehen”)라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나는 – 할 수 있다”(“ich kann”)는 의식이다.⁵⁷⁾ 이렇게 자유의식이 규정된다면, 이 “나는 –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고찰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고찰의 선결적인 사항이 된다.

b-1. “나는 – 할 수 있다”(“Ich kann”)는 “가능성”.

: 후설은 가능성을 “논리적 가능성”과 “실천적 가능성”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직관적인 표상에서 성립하는 단순한 가능성이고, 후자는 “– 할 수 있음 Können”的 가능성이다.⁵⁸⁾ 한편, 논리적 가능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형식적인 논리적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이 있는 doxi-

52) Ideen. II., S. 185.

53) Ideen. II., S. 186–8.

54) Ideen. II., S. 189. 이 새로운 동기부여적 관계는 정신적 세계의 근본원칙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면밀하게 고찰할 것이다.

55) Ideen. II., S. 257.

sche 논리적 가능성이다.⁵⁷⁾ 그러나, 여기서 실천적 가능성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내용이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이다.

가령, 나는(Ich) 내가 반인반마가 되어 숲 속을 달리는 것을 상상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kann). 이 때, 이 표상내용은 상상적으로 직관된다. 그리고 이 때의 “나는—할 수 있다 Ich kann.”는 직관에 한한 것이며, 나의 신체를 통한 어떤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실재적인 이 책상을 나의 신체를 통하지 않고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표상할 수 없다. 내가(Ich) 이 책상을 움직일 수 있다(kann)는 통각에는 필연적으로 나의 신체를 통한 나의 행위에 대한 통각이 수반된다.

이같이 나의 신체를 통한 나의 행위에 대한 통각을 수반하는 “나는—할 수 있다”는 실천적 가능성이며, 나의 신체를 통한 나의 행위에 대한 통각을 수반하지 않고 직관에 대한 통각만을 수반하는 “나는—할 수 있다”는 논리적 가능성이이다.

b-2. 실천적 가능성과 자유.

; 실천적인 “나는—할 수 있다”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하게 행위할 수 있다”(ich kann tun)는 것인데, 이 “나는—하게 행위할 수 있다”에는 “나는—을 움직인다”와 “나는—하게 행위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⁵⁸⁾ 주관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주관이 “나는—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주관에서부터 구심적으로 발동되어 주관이 그 발동에 대해 인정하면서 실천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 때, 주관은 “나는—한다”라든가 “나는 행동한다” 등의 의식을 가진다. 만약, 자아가 어떤 감정에 의해 억지로 강요당하고 속박당하면, 본래적인 “나는—한다”는 것은 봉괴되고 자아는 “움직이지 않고 움직여지는” 상태가 된다.⁵⁹⁾

이러한 실천적 가능성, 이 실천적 가능성에 입각한 자유, 그리고 이 양자에 입각한 실천적 의지의 발동은 정신적 자아인 인격의 고유한 특성이다.

3) 정신적 세계의 근본원칙 : 지향적인 동기부여의 관계

; 정신적 세계의 중심인 인격적 자아는 지향성의 주관으로서 자신의 지향적 상관자인 환경세계를 갖는다. 지향성의 주관인 정신적 자아와 환경세계 그리고 그 환경세계 내지 지향적 객체와의 관계는 경험적인 자아—인간이 사물적인 환경체계에 대해 갖는 실재—인과적인 관계와는 달리 지향적 관계 혹은 동기부여적 관계이다. 이는 정신적 세계를 물리물질적인 혹은 심리물리적인 자연적 세계와 구분해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a. 실재적 관계와 지향적 관계의 구분⁶⁰⁾

; 경험적 자아—인간인 내가 실재적인 사물과 갖는 실재적인 인과관계는 우선 나의 신체와 실재적인 객체 간의 인과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신체와 사물간의 물리물질적인 인관관계를 바탕으로 심리물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 실재적인 인과관계에서는 외부의 물리물질적인 사물이 없어지면, 마찬가지로 신체나 심리에서의 사실도 없어진다. 가령, 내가 어떤 움감각을 가진다고 할 때, 외부의 사물이 진동하고 그 진동이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의 신체부위인 고막을 진동시켜 내가 어떤 전신감각적인 신체감각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실재적 관계이다.

57) Ideen. II., S. 262.

58) Ideen. II., S. 261.

59) Ideen. II., S. 257.

60) Ideen. II., SS. 215—6.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인 신체-심리적인 주관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것은 가령 내가 상기 음감각을 갖고서 그 음이 아름답다고 판단하고 그 음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음이 발생하는 곳으로 가까이 간다고 할 때, 그 음의 아름다움과 가까이 가는 나의 행위와의 관계는 결코 실재적인 관계가 아니다. 대상이 되는 음의 아름다움은 자연적인 세계에서 이미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향적으로 부여한 것이고, 이 때 이 아름다움이라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관은 경험적인 주관이 아니라 정신적 주관 혹은 인격적 주관이다. 이같이 지향적으로 대상을 부여하는 주관과 지향적으로 부여된 대상과의 관계는 외부의 해당 실재적인 사물이 아니라진다 해도 변화할 수는 있어도 결코 아무 것도 상실하는 것이 없는 지향적 관계⁶¹⁾이다. 이때, 그 음의 아름다움은 더 가까이 간다는 나의 행위에 동기부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행위는 상기 실천적 가능성에 입각한 자유로운 의지와 목표에 대한 의식을 수반한다.⁶²⁾

b. 이성적 동기부여와 연합작용적 동기부여 혹은 능동적 동기부여와 수동적 동기 부여.

; 우리는 통찰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통찰해 보아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린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고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다시 다르게 행동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경험에 대해 습관적으로 일정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한다.

가령, 우리가 삼단논법을 수행하면서 주어진 두 전제를 통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두 전제를 그려그려하게 판단했고 그 전제들에 정립을 부여했기 때문에 결국 결론명제에 정립을 부여한다. 혹은 내가 다소 파손되었지만 오래되었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여 어떤 도자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 오래되었음에 가치정립을 하고 그 도자기에 가치정립을 한다. 이러한 경 우들에 있어서 결론명제에 대한 자아의 정립은 두 전제에 대한 자아정립에 의해, 도자기에 대한 자아의 정립은 오래되었음에 대한 자아의 정립에 의해 규정된다. 즉 나는 어떤 *cogito*를 수행하면서 내가 이미 수행한 다른 *cogito*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⁶³⁾ 여기에서는 *cogito*들 간의 “자극”관계가 수행되는데 이같이 *cogito*를 중심으로 하는 자아작용들 간의 동기부여 관계를 이성적 동기부여라 하는데, 특히 충동이나 경향에 의해 자극되지 않고 철저히 분별력 있게 동기부여하고 동기지위는 이성적인 자아 작용들 간의 동기부여를 순수이성적 동기부여라 한다.⁶⁴⁾

한편, 이같이 능동적인 자아정립이 없이 의식들 간에 이루어지는 동기부여가 있다. 이는 임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체험들이 현재의 체험을 동기지우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연합작용과 습관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동기부여가 속한다. 이 때, 동기 부여하는 앞선 체험은, 앞선 이성적 작용에서 성립된 “침전”들일 수도 있고 철저히 수동적으로 이끌려 이루어진 체험일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철저히 수동적인 체험은 종종 깊숙히 숨겨져 있으나 심리분석에 의해 드러나도록 강제될 수도 있다.⁶⁵⁾

연합작용과 수동적인 통각을 하부근거로 한 “인과성⁶⁶⁾”과 이성의 “인과성”은 분명히 구분되나

61) Ebd. 이러한 지향적 관계를 주-객 관계 *Subjekt-Objekt Beziehung* 혹은 주관적 인과성 *subjektiv Kausalität* 혹은 동기부여적 인과성 *motivationskausalität*라 부르기도 한다. 이 인과성들이 실재적 인과성이 아님은 물론이다.

62) Vgl. Ideen. II., S. 219.

63) Vgl. Ideen. II., S. 221.

64) Ebd.

65) Ideen. II., S. 222.

66) 여기서 “ ”라는 인용부호를 붙힌 것은 실재적인 인과성이 아니라 동기부여임을 의미한다.

서로 얹혀 있다.⁶⁷⁾

b. 정신적 자아와 그 토대 Untergrund

; 상기 동기부여의 두 가지, 즉 이성적 동기부여와 연합작용적 동기부여의 구분을 통해 두 인격적 자아가 이중적인 주관성 혹은 두 단계의 주관성⁶⁸⁾을 연출함을 알 수 있다. 높은 단계의 주관성은 특히 정신적인 주관성인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성의 자유로운 작용들의 자아인지적인 역할자로서의 층위이다.⁶⁹⁾ 그런데, 인격적 자아에는 자유롭지 못한 자아도 속해있다. 이 자유롭지 못한 자아는 감성 *Sinnlichkeit* 혹은 은폐된 이성 *verborgene Vernunft* 혹은 습관 *Habitus* 혹은 경향 *Disposition* 등으로 불리우는 층위 즉 주제화되지 않고 주의되지 않음으로써 은폐된 어두운 토대에 의해 얹매이는 따라서 “자연”에 얹매이는 자아이다.⁷⁰⁾

이 어두운 토대의 하층의 체험에서는 감각적인 “심리”⁷¹⁾가 알려지는데, 이 심리는 태도를 취하는 즉 대상을 주제화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높은 단계의 주관과 하나이다. 이 양자는 유일한 경험적 통일성을 이룬다. 그리고 이 통일성에 높은 단계의 태도를 취하는 인격적 주관이 구분되어 따로 설정될 수 있다. 하여간, 여기서의 심리는 “나의 심리”이고 기초를 제공하는 토대로서 인격에 속한다. 그런데, 이 심리는 객관적인(자연적인, 즉 신체 제약적인) 실재가 아니라 “정신심리 *Geistessele*”이다. 이 정신심리는 객관적인 자연으로 된 환경과 실재적인 관계를 갖는 실재적인 통일성이 아니고, 따라서 심리물리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 없는 심리이다.⁷²⁾

4. 신체, 심리 그리고 정신의 상호관계

4. 1. 세 실재층위들 간의 토대 부여 관계와 지배관계의 교환.

; 이제 우리는 적어도 네 가지 실재를 구분할 수 있다. 신체가 아닌 물리적 사물, 신체, 심리, 정신이 그것들이다. 이제 이것들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고찰할 단계이다. 물론 여기에서 신체가 아닌 자연은 간접적으로 운위하게 될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

1) 토대부여 관계의 층면

- a. 사실로서의 신체 즉 물리물질적 신체층위는 전신감각적 신체층위의 토대이다.⁷³⁾
- b. 전신감각적 신체층위는 “자유운동”的 신체층위 즉 의지적 신체층위의 토대이다.⁷⁴⁾
- c. 따라서, 물리물질적 신체층위는 의지적 신체층위의 토대가 된다.
- d. 정신적인 자아는 심리에 의존하고 심리는 정신에 의존한다. 즉 신체는 심리의 토대가 되고 심리는 정신의 토대가 된다.⁷⁵⁾ 이 때, 심리가 직접 의존하는 신체층위는 물리물질적 신체층위

67) Ideen., S.224.

68) Ideen., S.276.

69) Ideen., SS.276–8. 여기서의 “자연”은 물리물질적 자연이 아니라 환경세계적인 ‘나의 자연’이다 (Ideen. II., S.280) 그러나, 이는 정신이 자연을 하부근거로 삼는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Vgl. Ideen. II., S.281).

70) Ideen., SS.279–80. 여기서 심리에 “ ”라는 인용부호를 불편 것은 본래적인 의미의 심리가 아니라 정신화된 심리임을 의미한다.

71) Ideen. II., S.285. Vgl. Ideen. II., S.32.

72) Ideen. II., S.284.

73) Ideen. II., S.281.

이다.”⁷⁴⁾ 이 심리는 물리적 심리충위이다.

e. “정신심리” 즉 심리물리적이지 않는 심리충위는 심리물리적인 심리충위에 의존한다.⁷⁵⁾

f. 이러한 토대부여의 관계를 정리하면, <물리물질적 신체충위＼전신감각적＼신체충위＼의지적 신체충위＼심리물리적인 심리충위＼정신적인 심리충위＼정신 혹은 인격>이 된다.

2) 지배관계의 측면

; 실상 이 지배관계에서는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오로지 정신 혹은 인격 만이 지배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심리가 신체를 생화한다고 할 경우⁷⁶⁾ 심리가 신체를 “지배”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정신이 신체와 심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이들을 자신의 환경세계에 속한 환경 세계적 실제로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이 신체와 심리에 인격적인 의미를 지향적으로 부여해서 자신의 것으로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지배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심리는 물리물질적인 신체충위를 생화하여 전신감각적 신체충위로 역할케 한다.

b. 정신은 외계의 사물 뿐만 아니라 신체와 심리를 현출케 하고, 이 현출에 정신적 의미를 지향적으로 부여한다. 심지어 이론적으로 규정되는 수학화한 물리학적 자연도 일차적인 환경 대상인 현출을 바탕으로 정신의 특수한 이론적 활동이 가해져 구성된 의미체이다.⁷⁷⁾

c. 정신은 자신의 자유로써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하부의 신체충위를 의지적 신체충위로 역할케 하고, 이를 통하여 이미 자신의 환경세계로 변해 있는 외부의 정신적 사물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⁷⁸⁾ 가령, 손으로 쟁기를 만들고 그 쟁기를 이용해서 경작을 할 경우, 이 모든 것은 정신적 세계의 “사실”들이다.

3) 양자의 교환

a. 정신은 신체를 통해 “자연” 내의 다른 사물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⁷⁹⁾ 즉 정신은 신체가 없이는 자신의 환경세계적인 다른 사물들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정신이 신체를 토대로 함의 의미를 밝혀 주는 동시에 정신이 신체를 지배함의 의미를 밝혀 준다.

b. 신체는 한편으로는 물리물질적 신체로서 자연 내에 속하고 자연의 다른 사물들과 인과적인 관계를 지닌다. 따라서 나의 신체와 결합된 나의 정신은 “자연”에 “속한다”. 그러나 정신은 분명히 자연은 아니며, 자연과 인과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자연과 신체와의 인과적인 관계가 없이는 정신이 자연에 대해 갖는 동기부여적 혹은 지향적 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는 정신적인 인과성 즉 동기부여적 인과성에서 자연적인 인과성으로의 전환지점인 것이다.⁸⁰⁾

이렇게 볼 때, 인격주의적 태도와 그 상관자인 정신적 세계에는 자연주의적 태도와 그 상관자인 자연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동기부여적 혹은 지향적 관계에서 실재적인 인과관계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설의 심신론은 바로 이 두 태도와 그 상관자인 각각의 세계가

74) Ideen. II., S.284.

75) 이 부분은 후설의 저서에서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상기 3.2.의 3)의 고찰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76) Vgl. Ideen. II., S.32.

77) Ideen. II., S.282-6.

78) Ideen. II., S.282, 285.

79) Ideen. II., S.285.

80) Ideen. II., S.286.

통일되어 있는 사태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는 자연주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의 협동을 최종적으로 기술하고 있는⁸¹⁾ 것이라.

4. 2. 자연에 대한 정신의 존재론적 우월

: 상기 지배관계를 토대부여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철저히 실재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다면, 후설의 심신론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후설은 정신에 대한 철저한 자연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고 그 단적인 이유로서 그럴 경우 자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자가 소멸될 것임을 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자연은 항상 정신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 상대적인 장 Feld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반면에 정신은 절대적이고 비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⁸²⁾ 후설은 그 근거로서 사물의 개별성은 그 자체적으로 개별적인 정신의 개별성에 의존해서만 개별성을 지닌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⁸³⁾ 후설이 이 점을 정신의 절대성과 자연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체의 의미와 규정이 개별성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 개별성이 붕괴되면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닌 것만이 전부일 것이기 때문이리라.

자연 내의 각각의 사물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본질을 지닌 사물로 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사물들은 지금 여기에서의 주위 상황들과 연관적으로 그 무엇이며 시간의 연속에 의해 변화하는 주위의 상황에 따라 항상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자연의 무한성에 따라 철저히 개방되어 있다. 사물의 개별성은 지금 여기를 넘어서 버리면 전체적으로 붕괴되고 단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조차 없는 X로서의 자연이 남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과 여기라는 시간정립과 장소정립은 개별적인 주관성에서 구성된다.

반면, 정신의 개별성은 어떠한가? 정신은 체험하는 자이고 무엇인가를 주체화하는 태도를 취하는 자이고 동기부여하는 자이다. 체험은 필연적으로 바로 그 개별적인 것이고 동일한 것으로서 일회적인 것이다. 체험에서는 완전하고 구체적인 본질과 개별적인 현존이 통일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정신적 자아도 절대적인 개체로서 존립한다. 정신은 세계 안에 점에 있으므로써 개별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정신은 시간정립과 장소정립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개별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 자아가 빈 공간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정신적 자아는 습관의 담지자이며, 그런 점에서 자신의 개별적인 역사를 갖는다. 정신은 결코 X가 아니다.

이러한 정신은 인격적 자아로서 자신의 환경세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환경세계 내에서 각 사물들은 자신의 개별성을 획득한다. 인격적 주관에 대한 환경세계적인 대립자들은 인격적 자아 자체에 원본적인 개별성 즉 절대적인 개별성이 놓여 있는 것에 반해, 주관에 대립해 있는 자로서의 이차적인 개별성을 가질 뿐이다.

5. 맺는말

후설—현상학에서의 심신론은 대략 세 가지로 특징지울 수 있다. 하나는 구체적인 인간존재의 통일성을 충위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또 하나는 “심신론”이라고 할 때 “심”에 해당하는 충위를 심리와 정신으로 나누고 특히 정신에 비중을 두어 그의 현상학 특유의 지향성을 “심”的 원리로.

81) Ideen. II., S.281. “§ 62. Ineinandergreifen von personalistischer und naturalistischer Einstellung.”

82) Ideen. II., S.297.

83) 이는 Ideen. II., SS.297-302의 내용을 필자 나름으로 정리한 것이다.

삼아 자연적인 심리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제반 인격적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정신의 절대성을 토대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특징지울 수 있는 후설의 심신론의 철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설의 심신론은 데카르트의 이원론 즉 연장적 실체와 사유적 실체의 절대적인 구분에서 생기는 인간존재의 통일성의 난점을 극복하고 있다.—이는 후설이 신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물리물질적 충위 뿐만 아니라 심리와 결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전신감각적 신체충위와 정신에 결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의지적 신체충위를 발견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의 물리물질적 신체충위를 생화해서 전신감각적 신체충위로 만드는 심리의 작용과 물리물질적 신체충위와 전신감각적 신체충위를 정신화해서 의지적 신체충위를 만드는 정신적 지향적 작용을 그의 태도변경론으로 정당화하는데서 성립한다.

2. 후설의 심신론은 자연적 세계에 대한 정신적 세계의 독자적 우월성을 보임으로써 정신과학이 자연과학과 달리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보이는 존재론적 토대를 제공한다.—이는 후설이 인간존재의 인격적 측면의 고유성 즉 실재적 인과성으로 결코 설명될 수 없으며 단지 동기부여적 혹은 지향적 “인과성”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인간존재의 영역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성립한다. 이로써 사회역사적인 성격의 예술,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제반 인간 특유의 영역에 대한 탐구인 정신과학들의 존재론적 토대를 정립한 것이다.

3. 후설의 심신론은 인간존재에 대한 기계론적 유물론 식의 인간기계론 혹은 유물론의 언어 분석적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현대의 물리주의에 적절히 대항한다.—이는 후설의 소위 “심”에 해당하는 충위에 심리물리적인 심리가 아닌 지향적인 정신이 독자적으로 있음을 보임으로써 성립한다. 기계론적 유물론이나 현대의 물리주의가 물리적 자극과 물리적 반응 간의 인과적 관계를 제시하거나 심리적 사건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물리적 사건의 언어적 표현으로 환원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은 고작해야 아픔감각에 대한 것 정도이다. 더 고차적인 예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후설이 말하는 심리물리적인 심리충위의 영역에 한정되고 있다. 이 영역에서 그러한 실재적 인과성이나 그러한 언어적 환원이 가능한 것은 오히려 후설의 심신론에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 심리 물리적인 영역은 실재적 인과성에 지배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는 후설이 말하는 지향적 정신의 영역이다. 만약 이 영역을 실재적 인과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면, 가령 동기부여적 혹은 지향적 “인과성”을 실재적 인과성으로 완전히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후설의 심신론은 기본적으로 위기에 봉착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작업이 엄밀하게 완성되지 않는 한 자연과학적 제성과에 의한 인간존재에 대한 그 어떠한 가장 넓은 의미의 기계론적 주장도 자연에 대한 인간정신의 독자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후설의 철학적 정초를 철학적으로 무화시킬 수는 없다. 단지 그 가능성을 예시할 수 있을 뿐.

참고문헌

1. 후설의 저작들

- Ideen. II. :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Zweites Buch., hrg. von Marly Biemel. Martinus Nijhoff. Haag, 1952.
- Ideen. I. :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erstes Buch., hrg. von Walter Biemel. Martinus Nijhoff. Haag, 1950.
- CM. : Cartesianische Meditationen und pariser Vorträge. hrg. von S. Strasser. Martinus Nijhoff. Haag, 1963.
- EU. : Erfahrung und Urteil. hrg. von Ludwig Landgrebe.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72.
- PS. : Analysen zur passiven Synthesis. hrg. von Margot Fleischer. Martinus Nijhoff. Den Haag, 1966.

2. 그 외 저서 및 논문들

- Ludwig Landgrebe. Der Weg der Phänomenologie.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71.
- Werner Marx, 이 길우 역. 현상학(원제 : Die Phänomenologie Edmund Husserls. Wilhelm Fink Verlag, münchen, 1987). 서광사, 1989.
- Richard M. Zaner. The Problem of Embodiment. Martinus Nijhoff. The Haag, 1964.
- Maurice Natanson. "Descriptive Phenomenology" in : Descriptions, ed. by Don Ihde and Hugh J. Silverma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5).
- Robert Sokolowski. "The Theory of Phenomenological Deskription" in : 상동.
- Jerome A. Shaffer. 조 승옥 역. 심리철학(원제 : Philosophy of Mind.), 종로서적
- Guttorm Fløistad. "Introduction" in : Contemporary philosophy vol. 4. Philosophy of mind, ed. by G. Floeis-tad(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6)
- Jenny Teichman, Philosophy and the Mind. Basil Blackwell, 1988.
- Charles F. Levinthal, 이 관용, 김기중 역. 생리심리학(원제 : Introduction to Physiological Psychology, Prentice-Hall, 1983.). 법문사, 1986.